

여성문학연구

#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나병철

##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나병철

### 국문초록

이제까지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문학은 인식론적 미학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에 따라 얼마나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잘 드러냈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부합한 작품들은 자칫 도식주의에 빠지기 쉬웠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담론 자체가 갖고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목적론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본고는 사회주의 문학에서 여성담론이 그런 남성중심성을 극복함으로써 미학적 성취를 얻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나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여성적인 사랑의 서사가 계급담론의 도식성을 극복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박화성이나 강경애도 지식인을 그리거나 신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남성작가들처럼 경직된 목적론적 도식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하수도 공사」나 「인간문제」는 식민지 현실 속에 살아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사회주의 서사를 넘어서고 있다. 프로문학이 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기영처럼 사회주의 담론을 농민들의 전통문화에 연결시키거나 박화성, 강경애처럼 여성담론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카프 시절부터 사회주의 담론의 남성중심성을 감지하고 있던 김남천은 사회주의 등의 남성중심적 비판 담론이 와해되는 시점에서 여성담론이 새로운 비판적 위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남천은 박화성이나 강경애처럼 여성담론을 통해 사회주의 서사의 경직성을 수정할 수는 없었지만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파시즘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핵심어: 오이디푸스 구조, 여성성, 타자성의 사랑, 여성적 상징계

## 1. 식민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성

식민지 시대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3·1운동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출현했다. 그러나 계급문제에 치중한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었고 항상 민족담론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문학에서도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면서 또한 늘상 그와 논쟁의 관계에 있었다. 물론 민족주의자 중에서도 이광수와 염상섭은 큰 차이를 지녔으며, 현진건, 한용운, 변영로 등은 적지 않은 편폭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주의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서 사회주의 담론은 그런 다양한 민족담론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셈이다.

그같은 논쟁의 와중에서, 사회주의가 점차로 문단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저간의 사정은 무엇일까. 또한 그러면서도 사회주의 문학은 단선적인 도식성에 빠지기 쉬웠는데, 문학적으로 사회주의는 어떤 한계를 지녔던 것일까. 특히 이제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본고는 이같은 질문의 견지에서 사회주의적 서사와 문학을 재평가하려고 한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 사회주의 문학을 재평가하는 데는 전통적인 리얼리즘 이론을 보충할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1) 이 방법은 리얼리즘 이론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이론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점에서 개인과 사회를 미시적인 복합적 회로로 연결하는 정신분석학은 매우 중요한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분석학이 미시적인 시선을 통해 사회와 개인 중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신분석학을 넘어선 페미니즘 이론이나 들뢰즈·가타리의 앙티오이디푸스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한결 더 세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자의 이론들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내재한 가부장제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사회주의가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넘어서면서도 도식주의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은 것처럼 남성중심적인 권위를 여전히 지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런 비판적 맥락에서 본고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를 둘러싼 문제들을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이론으로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사회주의 서사의 등장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식민지적 오이디푸스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적 오이디푸스 구조란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명과 법에 예속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식민지적 오이디푸스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중적으로 형성된다. 국가·사회와 가정 및 개인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그 이중적 식민화 과정은, 공/사의 영역을 연결하는 라캉의 평행적 분석틀<sup>2)</sup>로 잘 조명될 수 있다.

식민지의 국권의 상실(공적 영역)은 정신분석학적인 은유로 아버지의 죽음(사적 영역)에 상응한다. 우리의 식민지 초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부재나 고아의의식은 그런 평행적 관계를 암시한다. 잘 알려진 이광수의 고아의의식은 그 표본적인 예일 것이다. 식민화의 과정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새 아버지를 맞아들임으로써 진행된다. 새로운 아버지는 새로운 법이기도 하며 신문명이라는 초월적 기표이기도 하다. 새로운 법과 신문명은 민족문화라는 어머니<sup>3)</sup>를 거세시켜 낡은 전통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 옛

2) 라캉의 평행적 분석틀은 순응적인 주체가 만들어지는 오이디푸스 모델에 근거한다. 우리는 식민화된 오이디푸스 구조에서 벗어나는 앙티오이디푸스의 관점에서 라캉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거나 기껏해야 봉건적 문화에 얽매는 구여성일 뿐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같은 과정은 사적인 영역에서 오이디푸스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치한다. 신문명이라는 권력을 가진 아버지(남성)는 그것이 결여된 어머니(여성)를 구여성으로 거세시킨다. 어머니 혹은 여성을 구제하는 방식은 남성중심적으로 물화된 신문명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 뿐이다. 여전히 결여(권력의 결여)의 상태에 있는 여성은, 남성(아버지)의 상대역으로 사적 영역에 폐쇄됨으로써, 현모양처라는 이데올로기적 세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은 가정의 영역에서 개화되는 방식을 통해 거세를 위장한 모습으로 신질서에 편입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문명의 권력을 지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오이디푸스 가족이 창시된다.

이처럼 식민화 과정은 공적인 영역에서 새아버지=신문명(혹은 법)에 예속된 국가를 만들면서 민족문화인 어머니(여성)를 거세시킨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는 오이디푸스적 가족에 근거해 신여성을 만들어낸다. 남성중심적 제국주의 권력은, 억압의 이양<sup>4)</sup>에 의해 제국에 예속된 식민지 남성 권력을 만들어 내며, 그와 함께 여성성의 거세 및 타자화를 수행한다.

그러면 그 한 예로서 우리의 식민화 과정은 어떠했는가. 일제의 식민화 정책 중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조사사업이었다. 1910년에서 1918년 말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 이전의 토지제도에 자본주의적 법을 부과한 정책이었다. 소유권/소작권으로 이중화되어 있던 토지제도에 이 사업은 근대적인 배타적 사유권을 부여했다.<sup>5)</sup> 자본주의적 법(소유권)의 관철인 이 정책의 결과로 농민들은 공동체의 모태인 토지로부터

3) 민족과 어머니의 은유적 관계에 대해서는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태수 외 역, 『에코페미니즘』(창작과비평사, 2000), pp. 161~163 참조.

4)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억압감을 아래의 다른 상대를 억압함으로써 전이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사상과 행동』, 김석근 역(한길사, 1997), p. 61 참조.

5) 堀和生,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농업정책」,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사계절, 1983), pp. 361~362.

유리되어 버린다. 즉, 그 이전에는 소작인이라도 토지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태(토지)로부터 강제적으로(법의 권력으로) 이탈되고 만 것이다. 자본주의적 법은 농민으로부터 소작권을 박탈한 대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주에게 집중시켰다. 그에 따라 지주의 수탈이 심화되고 농민들은 농토에서 쫓겨나 유랑민이 되기도 했다. 1920~30년대의 문학에서 궁핍화된 민중과 이농민의 모습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이를 예증한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법은 농민의 모태인 토지를 친일지주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제국의 하수인인 지주(혹은 마름)는 농민으로부터 토지=어머니를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인간문제』에서처럼) 실제로 소작인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기로 했다. 지주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 (『인간문제』에서처럼)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법에 대한 대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따라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이 식민지에 법=아버지를 부여하는 식민지로부터 공동체의 모태=토지와 여성성을 탈취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화 과정은 조선인에게 신문명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신작로와 철도로 상징되는 신문명은 이광수 등 계몽적 지식인에게 근대화된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환상을 갖게 했다. 그런 환상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무정』(1917)이라면 사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은 「혼인론」(1917)과 「신생활론」(1918)(이광수)이다. 이광수가 「혼인론」에서 처(妻)를 부(夫)에 예속시켰다면 『무정』에서는 민족=어머니를 신문명=새아버지에 무릎꿇게 하고 있다. 처는 가정의 영역에 폐쇄되며 민족은 개조될 운명을 지닌 신문명의 걸핍으로 거세된다. 공과 사의 영역에서의 이같은 오이디푸스화는 이중적인 식민화에 다름이 아니다. 즉, 이광수의 텍스트에서 국권을 잃은 민족은 제국의 신문명에,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식민화된다.

오이디푸스 구조에 근거한 이광수의 식민화된 민족주의는 가족의 해체(현진건, 나도향의 초기 소설)나 남과의 이별(김소월, 한용운의 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극복이 시도된다. 이광수의 민족주의가 남성중심적 제국의

신문명에 예속되는 노선이었다면, 가족의 해체나 남편과의 이별은 그에서 벗어난 여성성으로서의 민족정서를 재발견하는 길이었다. 물론 이 후자 역시 식민화에 대한 미학적인 극복일 뿐 국권을 회복하는(남을 되찾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이광수의 식민화된 민족주의를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근본적으로 전복시킨 것은 염상섭이었다. 염상섭은 이광수가 꿈꾸었던 근대적 가족구조가 해체된 자리에서, 현진건(「희생화」)이나 나도향(「젊은이의 시절」)처럼 여성성을 동경하는 대신 분열된 주체를 발견한다. 예컨대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김창억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아내(여성성)마저 잃어버린 후 분열증을 일으킨다. 김창억의 분열증은 실상 '나' (그리고 염상섭)의 내면의 상태의 한 부분이 증폭된 것으로 식민화를 거부하는 주체의 욕망이 담긴 것이다. '나' 나 그는 똑같이 식민화된 현실로부터 탈주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으며 그 욕망은 분열증적 주체의 내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식민화가 새아버지=신문명에 예속되는 과정이라면 새아버지의 억압에서 달아나 고아의 상태가 된 무의식<sup>6)</sup>이 바로 분열증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김창억과는 달리 계몽이성의 억제에 의해 분열증을 현실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식민지 현실에서 달아나려는 '나'의 끝없는 욕망<sup>7)</sup>은 김창억의 그것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은 그같은 분열된 주체를 발견함으로써 식민지 구조(오이디푸스구조)를 전복시키고 그 구조로부터 탈주하려는 욕망<sup>8)</sup>을 표현했다. 식민화 구조에 예속된 「무정」의 주인공이 순응적인 주체라면 분열된 주체는 반항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염상섭의 식민지 구조에 대한 저항은 개인적

6) 고아상태의 무의식에 대해서는 들뢰즈·가타리,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민음사, 1994), p.78, 129, 156 참조.

7) '나'의 여행의 욕망 등을 말함.

8)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는 물론 「만세전」의 이인화의 공동묘지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역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원의 욕망의 표현일 뿐 실제로 그 구조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만세전」의 이인화의 탈주의 욕망은 식민지 법(새아버지)에 의해 공동묘지가 되어 버린 사회구조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이지만, 그 욕망이 만세운동 같은 전복의 힘으로 결집되지는 못한다. 이것이 초기 염상섭의 근본적인 한계였다. 더욱이 식민지 현실의 변혁은 만세운동 보다도 더 조직적인 운동을 필요로 할 것이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사회주의는 염상섭 주인공의 내면의 일부<sup>9)</sup>인 탈주의 욕망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결력 속에 결집시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는 실상 식민지 시대에 현실 변혁을 기획한 유일한 담론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역시 또다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형태로 나타난 사회주의의 대서사는 사회주의 사회(혹은 공산주의 사회)라는 또다른 상징계(아버지)를 단일한 목표로 하는 점에서 남성중심적이고 목적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sup>10)</sup> 사회주의적 서사에 근거한 문학들이 초기에 도식주의에 빠졌던 것은 분명히 그와 연관이 있다.

이후로 사회주의 문학이 점차 도식성을 탈피할수 있었던 것은 민족전통의 재발견(「서화」 「고향」)이나 여성성을 매개로 함(박화성과 강경애의 작품)으로써였다. 후자의 작품들은 주로 여성작가의 소설들에서 나타난다. 또한 제국주의든 사회주의(혹은 민족주의)든 그 이념이나 사상이 남성중심적인 것이라 할 때, 「서화」나 「고향」에서의 민족전통의 재발견은 그것을 지양한 민족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남성중심적 사회주의

9) 초기소설은 계몽과 환멸의 결합이며, 환멸은 분열증적인 주체로 드러난다. 그것은 염상섭의 비극적인 주체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병철, 「근대문학의 기원과 주체의 계보학」, 『현대문학이론연구』 15집(2001) 참조.

10)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당시의 사회주의는 목적론적인 기획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식민지 구조를 전복시키는 미학적 힘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성성의 재발견이 중요한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머니=대지(토지)나 어머니=민족, 고향 등의 이미지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개인적인 차원의 여성성의 특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남성적인 고유성(property)에 대한 여성적인 허여성(gift)이나, 남성적인 이성중심성, 시각적인 것, 동일성 논리에 대한 다양성, 유동성, 촉각적인 것, 이질성 등이다.<sup>11)</sup> 또한 여성성은 아버지=상징계에 대한 어머니=기호계에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sup>12)</sup>

그런데 이같은 여성성이 무시간인 추상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성이 무엇이나에 못지 않게 그것이 어떤 공간(위치)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여성성이 근대적인 제도에 의해 규율화된 공간에서 드러날 때 이른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나 모성신화가 생겨난다. 이는 여성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남성중심적 가부장제(그리고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오히려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와 달리 남성중심적 상징계를 해체하는 전오이디푸스적인 것을 주목할 때 억압적인 근대적 제도에서 해방된 여성성이 나타난다. 허여성, 유동성, 이질성 등 (앞의 예를 든) 프랑스 페미니즘(식수, 이리가레이, 크레스타바 등)이 강조하는 여성적 정체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성은 구체적 삶의 맥락을 지니지 않는 한 심리학적 현실성만을 드러낸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성을 물질적인 삶의 맥락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탐구하려는 것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다. 물질적 삶의 맥락이란 성·문화·계급·민족 등 다양한 차원의 물질적 현실의 문제들이 교차되는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여성성이 가부장제적 남성에 대한

11) 팸 모리슨,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p.214~215 참조.

12) 위의 책, pp.243~244.

저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나타나는 사회역사적 현실을 변혁하는 데에 중요한 한 계기가 된다. 여성의 성적 육체는 단지 생물학적인 신체만이 아니며 성·문화·계급·인종의 맥락이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현실에서 여성성과 계급담론의 관계를 살피려는 우리의 입장은 당연히 세 번째의 관점(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계급문제와 여성성의 접합으로서 식민지 현실에서 어떻게 여성성이 변혁운동의 중요 계기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계급문제를 다루는 여성작가의 작품이 남성적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조명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도 여성성이 어떤 맥락에서 그려지는가에 따라 변혁적이냐 순종적이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식민지 시대에 여성성과 계급담론의 접합을 그린 작가로는 박화성과 강경애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당대의 식민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적 서사를 수용한 작가들이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여성성과 계급담론의 접합을 통해 남성작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에서 그들의 접합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사회주의적 서사를 구체적인 식민지 현실을 매개로 그럴 때에는 여성담론과 계급담론의 결합을 보여주지만, 관념적인 사상이나 이념의 차원에서 드러낼 때는 남성적 계급담론에 여성성을 예측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한편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의 관계를 또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작가는 김남천이었다. 남성작가이자 카프의 맹원이었던 김남천은 사회주의적 서사의 도식성을 여성담론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카프 시절부터 계급담론이 여성성을 억압함을 감지하고 있었던 그는, 카프 해체 후 사회주의 등 남성적 서사가 파시즘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시점에서, 여성담론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적 서사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변질될 수 밖에 없었던 식민지 말기에, 김남천은 여성담론만이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위치를 지닐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박화성과 강경애가 남성적 사회주의 서사의 경직성을 여성담론으

로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했다면, 김남천은 남성적 서사가 역사의 절망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여성담론을 통해 희망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박화성·강경애의 소설들과 김남천의 여성 시점 소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2. 사랑의 여성성과 남성적 계급담론

박화성의 소설에서 여성성은 어머니로서의 모성성이나 남자와의 관계에서의 사랑 혹은 동지애로 나타난다. 모성성을 드러낸 소설로는 「한귀」(35), 「춘소」(36) 등이 있으며 「추석전야」(25), 「두승객과 가방」(33), 「홍수전후」(34)에도 강한 모성애가 그려진다. 또한 사랑이나 동지애를 그린 작품에는 「하수로공사」(32) 「비탈」, 「두승객과 가방」(이상 33), 「혈어진 청년회관」, 「논갈 때」, 「신혼여행」(이상, 34)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문제를 다른 작품으로는 인신매매를 소재로 한 「중굿날」(35)과 「온천장의 봄」(36)을 들 수 있다.

이 세 유형 중에서 세 번째의 소설들은 객관적 정세가 악화된 30년대 후반에 쓰여진 탓으로 세태소설에 머물고 있다. 또한 모성성을 드러낸 작품들은 암담한 현실에 대응하는 강인한 여성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생명력이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고양되지는 못한다. 반면에 여성의 사랑이나 동지애는 한결 굳건하게 현실에 대응하는 사상적 신념의 차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사랑이나 동지애를 그린 작품의 문제점은 남성과의 동지적 관계가 여성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실상 남성애에 예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 유형의 소설에서 강인한 여성은 사실상 남성성에 예속된 여성인 것이다. 즉, 여성은 지도자적인 남성애에 순응하는 대가로 현실에 저항하는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 이 점은 박화성이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의 관계에 대해, “무산 계급의 해방이 없이는 여성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sup>20</sup>고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계급담론이 여성성을 전유하는 이런 양상은 박화성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계급담론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남성중심성을 지닌 점에 기인된 것으로 여성작가의 시각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예를 든 작품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수도공사」와 나머지 작품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후자의 소설들에서는 남성적인 지도성이나 동지애가 확고한 반면, 「하수도공사」에서는 여성성으로서의 사랑이 보다 많이 그려진다. 그리고 남성중심적 동지애가 그려진 작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사랑의 여성성이 드러난 「하수도공사」는 식민지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남성중심적 계급담론이 여성성을 매개로 식민지 현실을 세밀하게 그리는 과정에서 관념성을 지양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하수도 공사」는 사랑의 여성성만을 그린 소설은 아니다. 이 소설은 하수도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각성된 계급의식을 지닌 서동권을 중심으로 일제의 기만적인 식민정책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0년대 초에 일제는 실업자 구제를 명목으로 목포의 유달산록을 잘라 대규모의 하수도 공사를 벌린다.<sup>13)</sup> 그런데 이공사를 청부받은 일본인 중정(中井)은 공사부의 4 **할을** 착복하고도 세달 동안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홍분한** 노동자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집단행동을 벌려 마침내는 밀린 임금을 받아낸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는 사회주의자 권씨의 영향을 받은 동권이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노동 현장에 뛰어든 동권은 하수도 공사장의 노동자들을 각성시켜 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한다. 이런 시사적 전개는 1929년 이후 전개된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와 연관된 것이며 동권은 당시의 비평가가 요구했던 전위적인 인물에 해

13) 박화성, 「계급해방이 여성해방」, 『신여성』(1933. 2).

14) 임성희, 「박화성단편소설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91), p.22.

당된다. 이 소설의 작가는 여성이지만 이처럼 시사적 전개는 전위(지도자적 인물)에 의한 계급의식의 각성이라는 남성적 플롯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볼셰비키화에 영향받는 남성작가들의 작품이 도식성을 지닌 반면 「하수도 공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전위가 등장하는 남성작가들의 소설이 이념을 도구적으로 전달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이 소설은 여성성을 매개로 그 남성중심적 시사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여성적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맥락이 바로 동권과 용희의 사랑의 이야기이다.<sup>15)</sup>

이 사랑의 이야기는 노동자 투쟁의 시사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남성작가(한설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용희와의 연애의 이야기야말로 전위인 동권을 살아 있는 인물로 만들고 남성적 중심적 계급담론을 식민지 시대 삶의 이야기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주의적 의식의 각성에 의해 전유되지 않은 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흔히 두 주인공의 사랑이 동지애로 승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용희와 동권의 막연한 사랑은 동지애로 결속된 후에도 단지 이지적인 사상의 교류가 아닌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은 식민지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검은 얼굴에 광대뼈만 남은 노동자 동권을 향한 용희의 사랑은, 매혹적인 외모에 시선을 빼앗긴 연정은 아님은 물론, 계급의식과 사상에 감화된 경도의 감정도 아니다. 그렇다고 약간 부유한 포목점집 딸인 용희가 그에게 계급적인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도 두 사람의 사랑은

15) 변신원, 「동반자 작가가 본 빈궁과 여성의 현실」,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한길사, 1995), p.190. 이 글에서는 「하수도 공사」가 이념의 도구가 아닌 삶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는 그 삶의 이야기가 여성적 시각에 의해 가능해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수도공사」를 사랑의 서사의 관점에서 본 글로는 서정자, 「박화성의 작품세계」,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 2001)이 있다.

어린시절부터 식민지 현실에서 우여곡절(동권 집안의 몰락, 학생시절 모종의 사건 등)을 겪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싹터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인이 된 후 그들의 사랑은 특정한 사상에 기반을 둔 동지애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동지애는 남성작가 주인공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드러난다. 동지애를 그리는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은 막연한 연애감정을 넘어서서 이념적인 교류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기영의 『고향』에서 옥희(갑숙)와 희준은 복잡한 연애감정을 동지애로 극복한다. 둘 사이의 사랑의 감정은 '무거운 돌덩어리'<sup>16)</sup> 같은 것이었으며 동지애적인 결합은 비로소 가슴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 그같은 각성의 과정은 희준의 남성적인 계몽적 언어로 옥희에게 전달된다. 동지애적인 극복은 개인적인 애정을 사회적 사랑으로, 감정적인 열정을 이지적인 교류로 바꾸어 놓는다. 또한 그것은 촉각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sup>17)</sup>을 먼동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sup>18)</sup>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그와 달리 박화성 소설(『하수도 공사』)에서 주인공들은 다음에서처럼 여전히 에로스적인 연정을 갈망한다.

「글쎄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나도 가지」

하는 용희의 눈은 반짝인다.

「될 말인가. 나는 내 일이 따로 있어 가는게야」

「나도 같이 일하러 따라가지. 희순이가 시집으로 갈 때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언제든지 오빠와 같이 일하자고 내 손을 잡고 그러던데...」

「그렇게 문제는 쉽게 되지 못하는 것이오. 내게는 지금 한가한 결혼문제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16) 이기영, 『고향』(풀빛, 1989), p.564. 이는 물론 그들의 사랑이 불륜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17) 위의 책, p.555.

18) 위의 책, pp.564~565.

자기를 따라가겠다는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러한 말을 하는 동권이는 십구세의 청년으로는 지나칠만큼 그의 머리와 의식이 단련되었고 동권이의 이러한 이지적 태도와 성격에 용희는 더욱 열복하는 것이다.

『나는 용희를 애인보다도 한 동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희같은 유망한 여자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더구나 없소. 그러나 정세로 허락치 않는데야 어찌 하겠고, 말일 용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용희 스스로 용희 자체를 개척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렇지 않소 응? 용희!』

그는 용희의 어깨를 안으며 말하였다. 용희는 그의 가슴에 엎터지며 눈물지웠다.

『내 일평생 사랑하는 용희!』

그는 속으로

『이것이 이별의 포옹이다. 언제 다시 만날줄 알라』

하매 더욱 뜨겁게 힘껏 안으며

『어서 하로 바빠 떠나지 않아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였다.<sup>19)</sup>

위에서 동권은 용희에게 사랑 대신 동지애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동지애는 (『고향』에서와는 달리) 결코 에로스적인 사랑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동지애는 사랑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가한 결혼문제보다도 더 급한’ 임무를 말한 후에도 두 사람은 깊은 포옹을 나눈다. 용희와 동권의 포옹은 그들의 사랑이 단지 먼동을 바라보는 이지적인 시선(동지애)이 아니라 여전히 촉감적인 것의 갈망임을 암시한다. 그 사랑은 남성적이기 보다는 여성적인 것이다. 남성적인 동지애에 의해 여성적인 사랑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사랑에 의해 남성적인 사회운동의 사명감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적인 사랑이란 낭만적인 연정과는 구별된다. 낭만적인 연정은 충족된 애욕의 환상에 이끌리는 것인 반면, 여성적인 사랑은 욕망을 지

19) 박화성, 『하수도공사』, 『고향없는 사람들』(백양당, 1947), pp.66~67.

연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환상에서 벗어난다. 위에서 처럼 두 사람의 이별은 욕망의 지연이며, 그것은 소유의 욕망인 자신의 존재(property)<sup>20)</sup>를 지우는 방식으로 타자를 받아들임은 뜻한다.<sup>21)</sup> 그런 의미에서 여성적 사랑은 타자성을 지닌 타자를 존중하는 사랑이다. 동권의 요구는 그같은 타자성 곧 여성성으로서의 사랑을 매개로 독립된 정체성을 얻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성을 매개로 남성적 사회주의 시사를 그리는 방식은 식민지적 삶을 구체적으로 그린 작품(「하수도 공사」)에의 유독 두드러진다. 반면에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사회주의 지식인의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그린 소설에서는 남성중심적 계급담론이 여성성을 전유하는 (그리고 제외시키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비탈」 「두승객과 가방」 「헐어진 청년회관」 등에서는 지도자적인 남성과 순응적인 여성이 등장한다. 이 소설들에 여성의 각성이나 적극성은 오직 남성(남편이나 애인)의 지도적 사상에 순종함으로써만 얻어진다. 가령 「두승객과 가방」에서 아내는 감옥에 있는 남편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용기를 얻는다. 또한 「헐어진 청년회관」의 효주는, 옥중의 남편의 시선을 떠올리며, 출옥할 남편을 당당히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리라 다짐한다. 「비탈」의 주희는 비교적 능동적인 여성이지만, 그녀 역시 정찬에게 지도자적 역할을 부탁한다. 주희는 친구(수옥)의 애인인 정찬을 사랑하는 복잡한 연애편계에서 그 애정의 갈등을 지도자적 동지애를 요구하여 극복하려 한다.

주희의 말소리는 감격에 찬 음성이었다.

「저는 운동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을 정말 행복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끝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세요. 이로부터 선생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 가며 일평생 선생의 뜻있는 동무가 되겠다는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20) 이는 자신의 내부의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문예출판사, 1996), pp.103~111.



니다. 네? 허락해 주시겠어요?」

...(중략)...

『주희씨! 나의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주희씨의 배신하는 날이 없는 동안 나는 주희씨의 동지가 되기를 맹세합니다. 자-- 나의 이손을 굳게 잡아 주십시오』

정찬의 목소리로 기쁨과 감격에 떨렸다.<sup>22)</sup>

위에서 지도자적 남성(정찬)의 목소리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돌발적인 것이며 여성(주희)은 그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맹세를 고백하는 셈이다. 이는 사랑의 자리에 남성적인 동지애가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성중심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사회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듯이,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은 지도자적인 남성에게 몸을 기대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서사를 그리면서도 「하수도 공사」에서는 독백적 목소리 대신에 대화적 관계를 드러낸다. 앞의 예문에서 용희와 동권은 각자 서로 다른 위치를 존중하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동권의 이지적인 동지애는 용희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며 용희의 열정은 동권을 더욱 굳세게 만든다. 용희와 동권의 사랑, 이 여성성과 계급담론의 접합이야말로 미시 서사와 거대서사의 결합이자 여성상과 남성성의 진정한 만남일 것이다.

### 3. 법에 대한 질문과 식민지 여성의 체험

식민지 시대에 여성담론과 계급담론의 결합을 보여준 또다른 작가는 강경애이다. 강경애는 식민지 여성의 체험을 누구보다도 잘 그린 작가이다. 그것은 그녀가 하층민 여성의 입장에서 식민지 현실의 질곡의 형상화 했기 때문이다. 강경애의 대표작 「소금」(1934) 『인간문제』(1934)와 초기작 『어머

22) 박화성, 「비탈」, 앞의 책, pp.303~304.

니와 딸』(1931) 등은 모두 식민지 하층민 여성의 수난을 그린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에서 하층민 여성의 위치는 식민지적 모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잇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강경애 역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지 현실을 조망하고 있으며, 그 남성적 시각에 의한 여성담론의 제약을 얼마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박화성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다. 강경애의 경우 그런 한계는 가정의 맥락에서 여성을 그릴 때 두드러지며, 현실의 모순에 노출된 하층민 여성을 형상화할 때 해소된다. 가령 「동정」(1934)에서 '나'는 남자들을 증오하는 매음녀의 말에 동정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며 얼핏 받아들일길 꺼려한다. 또한 「모자」(1935)에서 승호 어머니는 죽은 사회주의자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현실의 모순을 자각한다. '우리는 아무리 잘살고자 하나 잘살 수가 없다'는 남편의 말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심하게 하는 진리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자 남편의 말이 아내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는 과정은 「원고로 이백원」(1935)에서 보다 분명하게 그려진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소설은 소시민적 욕망에 흔들리던 아내가 남편의 국건한 태도에 의해 교정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거칠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중을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굴복함으로써 아내의 마음에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보다 국건하게 내면화된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남편의 남성중심적 태도 역시 내면화되고 만다.

이런 아내와 남편의 남성중심적 관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자체의 가부장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편은 사회주의를 신봉함으로써 세속적 욕망을 배제하는 금욕주의와 권위주의를 내면화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남편에게 예속됨으로써 남성중심적 사회주의를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성중심적 세계관은 강경애 작품 중 하층민 여성의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식민지 현실을 그리는 소설에서 대부분 지양된다. 그것은 남

편과 아내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의식으로만 소통되던 사회주의적 세계관이, 식민지 현실이라는 공적 맥락으로 옮겨져 행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전이의 과정은 또한 관념적 교의의 차원에서 물질적 현실의 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sup>23)</sup>

하층민 여성의 위치는 자본주의의 타자(하층민)의 입장과 남성중심적 사회의 또다른 타자(여성)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식민지라는 공간이 남성중심적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의 모순이 증첩된 곳이라고 할 때, 하층민 여성은 그 다중적 질곡이 겹쳐지는 위치이다. 강경애의 소설 중 하층민 여성의 그런 소설이 식민지 현실의 문제를 가장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계급담론과 여성담론의 접합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린 소설은 『인간문제』이다. 『인간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여느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흔히 긍정적 주인공들의 집단 행동이 제시된 후 결말로 나아가는 다른 사회주의 소설들과는 달리, 『인간문제』는 여자 주인공 선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대기적 구조를 보여준다.<sup>24)</sup> 이는 이 소설이 하층민 여성의 위치에서 식민지 현실을 조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문제』에서는 첫째나 신철같은 남자 주인공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이 소설이 여성담론을 도입하면서도 다른 한편 여전히 남성적인 사회주의적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적 전망은 지식인 주인공(신철)에 의해 외적으로 부과되기 보다는 농민인 첫째가 스스로 내면 속에서 얻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소설과는 달리 지식인 주인공의 역할이 그만큼 부차적이다. 첫째의 성장과정 자체가 지적인 인식이기보다는 주체적인 삶의 욕망

23) 양자의 차이는 각본과 공연의 차이, 교의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소명출판, 2002), pp.302~304 참조.

24) 이은경, 「강경애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9, p.27.

의 자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욕망의 자각은 선비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겹쳐진다. 이 소설에서 첫째와 선비의 사랑을 그리는 여성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첫째는 인식의 주체라기 보다는 욕망의 주체로 그려진다. 첫째의 욕망은 사유에 집착하는 자본주의적 욕망과는 다른 공동체 속에서의 해방된 욕망이다. 그가 농민들이 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저항적 행동을 보인 것은 그 공동체적 욕망의 좌절을 느낀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의 행동은 알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해방의 욕망에 근거한 첫째의 행동은 가로막는 그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 자본주의의 ‘법’이다.

『우리들이 어제 덕호와 싸운 것이 법에 걸리는 일이다지? 그 법……법……』 그는 머릿을 돌려가며 몇 번이나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점점 더 답답할 뿐이지, 뒤엀킨 실끝을 고르는 수가 없었다.<sup>26)</sup>

이같은 첫째의 ‘법’에 대한 질문은 실상 지주(덕호)에게 빼앗긴 공동체적 삶을 되찾으려는 욕망의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실타래같은 그 질문은 첫째가 노동자가 된 후에도 계속된다. 첫째는 신철의 도움으로 질문의 실타래를 얼마간 풀지만 사랑하는 선비의 죽음 앞에서 더욱 큰 뭉치가 그의 앞을 가로 막는다. 그때 질문의 실타래가 더욱 큰 뭉치(인간문제)가 될수록 그 ‘인간문제’를 해결하려는 첫째의 욕망 역시 불덩이처럼 강렬해진다.

그러면 첫째와 선비가 농민에서 노동자가 되기까지 줄곧 그들의 사랑과 삶의 욕망을 가로막았던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글의 서두에서 살펴봤던) 식민지 시대의 사회체제(상징계)를 유지시키는 자본주의적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예측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서 자본주의적 법을 부과한다. 자본주의

25) 강경애, 『인간 문제』, 『강경애 전집』(소명, 1999), p.243.

적 법은 농민을 공동체의 모태인 토지로부터 유리시키고 토지의 소유권을 지닌 지주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물론 식민지에서는 토지제도가 자본주의화된 후에도 여전히 지주-소작인 관계(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나 농민(소작인)의 소작권을 박탈함으로써 토지를 사유한 지주가 농민을 마음대로 수탈하고 내쫓을 수 있게 된다. 소작권의 박탈은 농민의 모태인 토지의 강탈인 동시에 그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 결과 토지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으로 얽혀 있던 농민의 삶이 해체되는 대신 그 조각난 토지에 대한 권한이 모두 지주에게 집중된다.

이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은 실상 공동체에 속해야 할 소유의 권한을 권력을 지닌 특정한 개인에게 집약시킨 것에 불과하다.<sup>26)</sup>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법이다. 첫째가 벼를 빼앗기고 토지에서 내쫓기는 농민들을 보면서 분노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법은 그같은 저항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권을 지닌 지주를 가부장제 논리로 비호한다. 지주의 사유권을 보장하는 법은 지주를 그에 근거해 농민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부각시킨다. 그래서 법=지주=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만 농민들은 생존이 허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문제』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을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다’<sup>27)</sup>는 덕호(지주)의 말을 믿으며, 선비 역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덕호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일제가 식민지에 부과한 자본주의적 법은 농민들을 모태(어머니)인 토지로부터 유리시킨 대신 아버지=법에 예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로 위장한 식민지 권력 혹은 그 하수인 지주는, 소유권이라는 법을 내세워 공동체를 열망하는 농민을 가혹하게 처단한다. 법에 저항한 첫째는 밭을 떼이며, 선비 아버지의 죽음 역시 극빈의 농민을 동정해 덕호의 빛(소유권)을 독촉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덕호는 가부장제적인

26)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역,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갈무리, 1996), pp.255~256 참조.

27) 강경애, 『인간문제』, p.238.

지주의 권력을 이용해 선비 등 농민의 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까지 한다. 식민지의 농민들은 지주에게 어머니=토지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여성성=정조를 짓밟히기까지 한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적 착취에는 자본주의적 법과 가부장제적 권력이 이중적으로 작용한다.

『인간문제』의 후반부에서 첫째와 선비는 도시(인천)로 흘러들어와 노동자가 된다. 두 주인공의 이런 변모는 토지에서 유리된(그리고 성적으로 유린당한) 농민이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환경에는 농민을 수탈하던 자본주의적 법이 더욱 더 철저하고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건강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착취를 당한다. 폐병으로 인한 선비의 죽음은 그런 ‘인간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또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그 법의 실행이 일방적이다. 인천 부두 노동자들의 반대의 힘의 행사, 즉 그들의 단결과 쟁의는, 일방적인 ‘법’에 부딪혀 정관에 의한 검거로 이어진다.

자본주의의 실행이 농민보다 노동자에게 더욱 철저하다는 점은 자본가들이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장의 규율에 길들이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내적으로도 물샐틈없는 그런 공장의 환경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쳐진 담장을 바라보는 간난이의 눈을 통해 암시된다. 야학에서 감독들의 설명에 여공들은 행복을 꿈꾸지만 간난이는 운동장이 둘러쳐진 높은 담을 보며 아득함을 느낀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어려운 담장안 공장에는 착취와 감시, 그리고 감독들에 성적 유린이 있을 뿐이다.

그같은 노동자의 환경에서 첫째와 선비는 의식이 각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소작농 시절부터 이미 문제의식을 지녔던 첫째의 성장과정은 매우 뚜렷하다. 그에 반해 선비의 노동환경의 모순에 대한 자각은 다소 모호하게 그려진다.<sup>28)</sup>

28) 이상경, 『강경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pp.107~108.

그러나 인간문제는 단지 농민이나 노동자가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각성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만은 아니다. 이 소설이 다른 사회주의 소설보다. 한결 감동적인 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첫째와 선비의 해방된 삶에 대한 욕망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같은 욕망은 두 주인공의 사랑의 서사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첫째와 선비의 사랑은 자본주의적인 소유욕에 의한 애정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다. 소유욕에 의한 사랑은 타자에 대해 일방적인데, 그 극단적인 예가 덕호와 공장감독의 성적 유린이다. 반면에 첫째와 선비의 사랑은 다음에서처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랑이다.

선비가……참말 그 선비였을까? 그리고 저안에서 지금 실을 켜고 있는가? 혹은 잠을 자고 있는가? 그도 나를 확실히 본 모양인데……나를 알아보았을까?<sup>29)</sup>

그리고 첫째의 얼굴을 다시 그려 보았다. 자기를 보고 놀라는 듯한 첫째의 표정을 보아 그도 역시 선비 자신을 알아 본 듯하였다. 따라서 잠시간 이나마 첫째가 자기를 어느 구석에 잊지 않고 이때까지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선비 자신이 흥분이 되어 그를 바라본 것만은 사실인 듯하였다. 그때 선비의 가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회와 슬픔, 그리고 반가움이 교차되어 가지고 그의 조그만 가슴을 잡아 흔들었다. 동시에 언제까지나 그의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sup>30)</sup>

위에서 첫째와 선비의 관심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았는가에 쏠려있다. 즉, 두 사람은 모두 쌍방적인 시선의 교류를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일방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을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것, 즉 타자의 욕망이 자신의 안에 들어오도록

29) 강경애, 『인간문제』, 앞의 책, p.373.

30) 위의 책, p.375.

문을 여는 욕망이다.

이런 타자성의 사랑은 선비의 경우에 보다 분명하게 그 특징을 보인다. 선비는 한 때 덕호를 아버지로 부르기도 했으며, 성적 폭행의 굴욕을 잊고 아들을 낳아 호강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그때의 그런 욕구는 권력(아버지)에 무릎을 꿇는 대가로 누릴 수 있는 비굴한 소유욕이었다. 또한 선비는 어머니가 앓을 때 소태나무 뿌리를 구해다 준 첫째의 순정을 내팽개치기도 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순박한 사랑에 문을 열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후회스러운 장면으로 떠오른다. 그것은 선비가 자아의 문을 열고 타자를 내면으로 들여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 경우에는 (충만한) 자아에서 물러선 것이 오히려 자아의 성장인 셈이다. 선비는 이제 자신을 욕망(사랑)하는 첫째가 내면에 들어오기를 욕망한다. 타자성을 지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물러서는 자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망이다. 타자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욕망이 남성중심적인 것이라면, 이 타자의 자리를 위해 물러서는 자아의 욕망은 여성적이다.<sup>31)</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타자성을 지닌 여성적인 사랑이 소외된 타자를 해방시키려는 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소유욕이 타자의 몫을 개인에게 끌어모으려는 축적의 욕망이라면, 타자성의 욕망은 자신의 안에 타자들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 한다. 따라서 타자성의 욕망은 공동체적 해방의 의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첫째와 선비의 타자성을 지닌 사랑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선비는 첫째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덕호의 성적 유린의 본질을 뼈아프게 통찰한다. 그리고 덕호같은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단결해야 됨을 깨닫는다. 여기서 첫째의 손목을 쥐어 보고 싶은 선비의 촉감적인 사랑(여성적 사랑)은,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는 계급적 단결의 욕망(남성적

31) 레비나스, 앞의 책, p.108.



동지애)으로 연결된다. 즉, 타자성의 사랑이 (자본주의적 소유욕에 의해) 억압된 타자를 해방시키려는 욕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적인 사랑의 욕망이 남성적인 해방담론(대서사)과 결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선비가 식민지 하층민 여성이라는 다중적으로 소외된 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해방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첫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첫째는 사랑하는 선비의 죽음 앞에서 실천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다. 물론 첫째나 선비의 각성에는 지식인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얼핏 부차적으로 보이는 선비와 첫째의 사랑의 서사는 실상 보다 심층적인 감동을 제공한다. 즉 여성적인 사랑의 서사는, 남성적 계급서사가 여성성을 전유하는 것을 탈중심화시킴으로써, 식민지 현실을 다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문제』가 남성작가의 사회주의 소설에 비해 한결 생생한 현실성을 지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처럼 욕망의 서사(사랑의 이야기)와 인식의 서사(계급의식의 각성)가 결합된 예는 다른 사회주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의 경우 (앞서 살폈듯이) 계급적 동지애가 사랑의 욕망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경애의 작품에서도 일상(그리고 가정)을 그린 소설에서는 사랑보다 동지애가 우월성을 지닌 것으로 미화된다. 강경애 소설 중 그같은 관념적 우월성이 흔들리는 고뇌를 담은 작품으로는 「번뇌」(1935)가 있을 뿐이다.

「번뇌」는 일종의 후일담 소설로서 결말이 연기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동지의 아내를 사랑하는 R의 이야기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 파렴치한 불륜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지와 그의 아내는 단 사흘도 함께 있어 보지 못한 반면, R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애뜻함과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서사를 배반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귀결되었을까? R은 '나'와 독자에게 궁금증만 남긴 채 이야기를 맺지 않고 밤길 속으로 사라진다. 그와 함께 대서사(마르크스주의)의 후일담으로서 사랑의 서사에 대한

작가의 윤리적 판단 역시 연기된다.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대에 대서사에 대한 탈근대적 질문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한다.

#### 4. 사회주의 서사의 위기와 여성이 어른이 되는 길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와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남성적 계급담론과 여성적 사랑의 서사의 접합을 보여주었다면, 여성의 시점을 사용한 김남천의 일련의 소설들은 계급담론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여성담론이 그 빈 틈새에서 생성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앞의 소설들이 여성적 서사를 통해 남성적 사회주의 서사의 경직성을 수정하고 있는 반면, 김남천의 소설들은 사회주의 서사가 파시즘에 의해 와해되는 시대에 그 빈 공간에서 여성담론이 비판적 위치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경우 모두 여성담론이 목적론적 서사의 경직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위치를 지남을 암시하고 있다.

김남천은 카프 시대부터 이미 여성 시점을 통해 사회주의자를 바라보는 소설(「납편 그의 동지」)을 쓴 바 있다. 이는 그가 카프의 맹원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계급담론의 남성중심적 경직성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그는 카프 해체 직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주의 지식인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소설(「치를 때리고」)을 썼으며, 파시즘의 시대에는 여성의 시점으로 사회주의자의 전향을 비판하는 작품(「경영」 「맥」)을 발표한다. 이러한 일련의 여성 시점 소설들은 사회주의의 남성중심성을 넘어서는 김남천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남천 소설이 처음부터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남성적 계급담론을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박화성이나 강경애와는 달리 남성작가인 그는 계급담론의 경직성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수정할 여성담론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성적 서사들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와해되어 가는 시

점에서, 그의 소설들은 의지할 남성을 잃어버린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발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됨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여성이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연성을 통해 남성서사의 와해와 변질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남성서사는 역사적 위기의 시점에서 자신의 경직된 한계로 인해 무력하게 무너지고 변질된다. 반면에 자신의 목소리를 갖어본 적이 없는 여성은 기대했던 남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얻게 된다. 남성적 상징계를 잃어버림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고아가 된 여성은 새로운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상징계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김남천이 파시즘의 시대에 비판적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강직한 남성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 여성이 스스로 어른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위치에서였다.

김남천의 여성 시점 소설들은 것처럼 여성이 자신의 독립된 목소리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남편 그의 동지」에서 「처를 때리고」를 거쳐 「경영」 「맥」에 이르는 과정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얻는 과정인 동시에 그 독립된 목소리를 통해 남성과는 다른 길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먼저 카프 시대에 쓰여진 「남편 그의 동지」(1933)는 비록 여성 시점으로 쓰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1인칭 화자인 아내의 목소리가 남편의 남성중심적 담론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나'(아내)는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냉담한 동지의 행태를 통해 사회주의자의 위선과 모순을 보게 된다. 그같은 모순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이 아내의 여성 시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울분과 불만은 남편의 경직된 목소리에 묻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만 울리는 독백이 된다.

『원 술집에만 다니구 모두 한번 찾아오지두 않는 구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빠가! 무슨 개수작이야! 그런 소리 할려면 다시 오지 말어!』

하고 말하는 것이다. 문은 닫혔다. 그리고 나의 눈 앞에는 흰 얼굴도 웃는 얼굴

도 노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중략)…

나는 다시 김씨와 현씨의 술집에서 나오던 모양을 생각하여 보았다.

『야-아 노오나 도데모스코이나』

내귀로 똑똑히 들은 목소리다. 그리고 나의 이 멀쩡한 두 눈으로 낱낱히 본 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빠개! 하고 소리치고 가버린 것이다.<sup>32)</sup>

위에서 아내의 불만이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 갇힌 것은 남편의 한 마디 욕설에 의해서이다. 남편에 얽매어 있는 아내는 그의 질책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자신의 목소리는 그 남편의 벽을 넘지 못한다. 위에서 ‘달힌 문’은 아내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그런 남편의 벽을 상징한다. 아내의 독백을 듣는 것은 독자일 뿐이지만 우리(독자)는 남편의 벽에 갇혀 공허하게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다.

「남편 그의 동지」와는 달리 「처를 때리고」(1937)에서 아내 정숙은 남편에게 대들며 소리를 지르게 된다.<sup>33)</sup>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변화는 사회주의자 남편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된 사회적 변화와도 연관된다. 사회주의자의 운동이 현실에서 힘을 얻고 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생활적 무능력에 대한 불만을 그의 벽 안에서만 공허하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무력화된 사회주의자가 소시민적 생활의 영역에 침거하고 있게 되자 아내는 남편의 벽을 넘어 마주 소리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야 사회주의자 참 훌륭하구나. 이십년간 사회주의나 했기에 그 모양인 줄 안다.

질투심. 시기심. 파벌심리. 허영심. 굴욕. 허세. 비겁. 인찌끼. 뿌룩커. 네 몸을

32) 김남천, 「남편 그의 동지」, 『신여성』(1933. 4) 현대어 표기, 인용자.

33) 이 소설은 소설의 상황을 먼저 요약서술로 제시하고 이어서 부부싸움의 과정을 내적 초점화에 의한 아내의 발화 및 남편의 내면적 반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흐르는 혈관 속에 민중을 위하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서 흘러 있다면 내 목을 바치리라.

정치담이나 하구다니면 사회주의원가. 시국담이나 지껄이고 다니면 사회주의원가. 백년이나 하루같이 밥 한 술 못벌고 십여년 동안 몸을 바친 제 여편네나 때려야 사상간가. 세월이 좋아서 부는 바람에 우쭐대며 현수작이나 지껄이다가 감옥에 다녀온 게 하늘같이 백년가두 그걸로 행세꺼릴 삼아야 사회주의자든가.<sup>34</sup>

위에서 아내는 사회주의자의 위선과 무능력을 질타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사회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아내의 목소리는 사회주의자 남편의 벽을 넘어 그의 뇌리를 파고 든다. 그러나 이는 아직 아내가 자신의 여성적 위치와 목소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내는 사회주의자의 남성중심성을 질타하고는 있지만 바깥 세상의 남성중심적 상징계를 비판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여전히 현실의 가부장제적 상징계에 갇힌 채 단지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자인 남편의 모순에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아내의 목소리는 사회주의자인 남편의 벽을 넘지만 바깥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남성중심적 상징계 내부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 말기에 쓰여진 「경영」(1940) 「맥」(1941)은 사회주의자가 친일로 전향해 바깥 세상에 야합해버린 시점에서 그 남성중심적 상징계에서 분리된 위치를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최무경은 「처를 때리고」에서처럼 애인 오시형에게 대들지는 않지만 오시형으로부터 이탈된 위치에서 그의 모순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sup>35</sup> 그 과정은 최무경이 남성과 남성중심적 세계에서 독립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영」 「맥」은, 남성중심적 상징계에 속한 지식인들이 모두 친일로 전향

34) 김남천, 「처를 때리고」, 『조선문학』(1937. 6) 현대어 표기, 인용자.

35) 이 소설은 3인칭이면서 최무경의 내적 초점화(혹은 내부시점)로 된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 상징계의 외부인 부재영역에 속한 여성의 위치가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관형과 오시형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파시즘의 현실에서 허무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타락자가 된다. 이는 그들이 남성중심적인 경직성을 갖고 있어서 한 순간에 꺾어져 버리거나 보다 더 복합적으로 경직된 남성중심적 파시즘의 나라에 빠지게 됨을 보여준다. 반면에 그런 남성중심적 상징계에 예속되었으면서도 또한 그 타자의 위치에 있던 여성 주인공은, 파시즘의 바깥의 공간에서 (아직 가지 않은) 여성의 길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나가겠다는 하나의 높은 생활력 같은 것을 천품으로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생활력은 제 앞에 부딪혀 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다.…(중략)…그가 생각해 본 것은 모든 운명의 쓴 술잔을 피하지 않고 마셔버리자 하는 일종의 능동적인 체관이었다. 그는 우선 어머니와 오시형을 공연히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리라 명심해 본다. 자기 자신을 그들의 입장 위에 세워보리라 생각한다.<sup>36)</sup>

그럴 때마다 그는 오시형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내들이란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서면 저렇게 평상되지 않은 행동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아주 그러한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면 타락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일까. 이관형이의 오늘 행동이 그러한 구렁텅이로부터 정상된 생활 상태로 복귀하려는 사람의 몸부림 같아서 그는 지금 아까와 같이 웃음이 떠오르지도 않는 것이다.<sup>37)</sup>

36) 김남천, 「맥」, 『김남천 창작집』(슬기, 1987), p.140.

37) 위의 책, p.165.

위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최무경의 천품은 개인의 품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연한 여성성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인용문에서처럼 남자들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 쉽게 좌절하거나 변절하는 것은 그런 여성적인 유연성을 지니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여성적인 유연성이란 최무경처럼 타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능동적인 체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목적론에 얽매인 남자들이 쉽게 꺾이는 반면 최무경같은 타자성을 지닌 여성은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론 최무경이 그런 천품을 지녔다고 처음부터 여성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와 애인에게 예속되어 있던 최무경은 사적 영역에 갇혀 사회적 현실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반쯤은 어머니와의 상상계적 관계에 있으면서, 또 반쯤은 남성적 상징계에서 애인에 종속되어 사적 영역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애인인 오시형이 사회주의자이든 친일로 전향하든 그녀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고 애인마저 평양으로 가버리자 얼마동안 삶의 의미와 생존의 목표를 잃어 버린다.

이처럼 최무경은 심리적으로 고아의 무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남성이라면 새로운 상징계(새 아버지)를 받아들이거나 분열된 심리상태를 경험한다. 분열된 심리는 한편으로는 자살충동이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변혁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최무경은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아직 가져본 적이 없는 자기자신의 목소리와 생활을 갖을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은 여성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길, 즉 여성적 상징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여성적인 성숙의 길은, 그녀가 의존성을 잃음으로써 이제 타자가 된 어머니와 애인의 삶을, 그들 타자의 편에서 이해하려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시형이는 그의 앞날을 위하여 영위함이 있어 마땅한 일이며 어머니는 어머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하여 설계함이 있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뒤에 남아 있는 최무경이 자기 자신은? 그는 생각해 본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생활을 가져 보자!' --이것이 그를 구렁텅이에서 구하여 낸 결론이었다.<sup>38)</sup>

나도 나의 생활을 갖자! 나의 생각을 나의 입으로 표현할 만한 자립성을 가져 보자! 오시형이의 영향으로 경제학을 배우던 무경이는 또 그의 가는 방향을 따라 '철학을 배우리라'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너를 따르고 너를 넘는다! --이러한 표어 속에 질투와 울분과 실망과 슬픔과 쓸쓸함과 미움의 일체의 복잡한 감정을 묻어버리려 애쓰는 것이었다--.

...(중략)...이를 악물고 시험공부를 하듯이 대들었으나 날이 갈수록 어쩔지 제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이 무한히 반가웠다. 책을 접고 침대에 누우면서 또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을 읽을 들면서 그는 언제나 '나는 어른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빙그레 웃고 하였다.<sup>39)</sup>

위에서 최무경은 타자인 어머니와 애인의 위치에서 그들의 일을 생각해 보며 자기 자신이 성숙해 감을 깨닫는다. 앞서 밝혔듯이 이점이 좌절하는 남성과 달리 절망을 넘어서는 여성의 위치의 특성일 것이다. 둘째 인용문에서 최무경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전과 비슷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전과는 달리 애인에게 무조건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자기자신을 초기 위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최무경이 타자를 이해하며 자아를 찾는 과정은 또한 자신의 독립된 목소리를 갖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허무주의적인 지식인 이관형과의 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 최무경은 이관형과의 대화에서도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 지식인과

38) 위의 책, p.142.

39) 위의 책, p.146.



는 달리 원래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또한 타자를 **존중하는** 유연한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특히 자신의 사상을 말할 때의 오시형의 독백조의 목소리와 잘 대비된다.

시형의 말하는 투는 보통 대화조가 아니고 어딘가 연설 같은 느낌을 주는 어조였다....(중략)... 그러나 시형은 혼자서 저 자신에게 타이르거나 하듯이 **참분**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열을 올려서 제 이론을 전개해 보고 있었다.<sup>40</sup>

“동양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동양학**은 어떻게 해서 오시형이를 저토록 고민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것일까, **동양학**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란대 그것은 오시형이와 최무경이의 관계를 이토록 유린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의 질문에는 학문과 애정의 문제가 함께 얽혀져서 마치 그의 생활의 전체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열쇠 같은 것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사내들의 세계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사실 그는 오시형이가 평양으로 내려간 뒤부터 그를 이해하고 있달 자신이 없어졌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이관형이란 사내 역시 형체를 붙들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중략)...

“그러나 **서양학**자들이 동양을 연구하는 데는 좀 더 다른 의미도 들어 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서양의 몰락과 동양의 발전이라던가 하는.”<sup>40</sup>

앞의 예문은 오시형이 최무경에게 하는 독백조의 말이다. 또한 뒤의 예문은 이관형과 최무경의 대화의 일부분이다. 후자에서 최무경은 그에게 실망을 준 오시형을 이해해 보기 위해 화두를 꺼내고 있다. 최무경의 질문에 이관형은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최무경은 오시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이관형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다. 여기서 최무경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보다는 오시형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을 하고 있

40) 김남천, 「경영」, 앞의 책, pp.112~113.

41) 김남천, 「맥」, 앞의 책, pp.173~175.

다.<sup>42)</sup> 최무경의 태도는 타자의 위치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것이지만, 또한 여전히 자신의 위치가 아닌 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무경의 태도는 그 이전에 애인에게 종속되어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시형의 말과 태도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최무경은 전과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오시형의 세계에 부딪히고 있다. 최무경은 오시형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이해불가능한 요소에 부딪히게 된다. 위에서 오시형의 말을 반복하려는 것은 사실은 그 이해불가능한 요소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최무경은 오시형의 위치에서 그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말을 얻게 된다. 이관형과의 대화에서 보리에 대한 그녀만의 독특한 해석은 오시형도 이관형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sup>43)</sup> 회의주의적인 이관형과는 달리 최무경은 보리처럼 흙에 묻혀 꽃을 피워보자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이 희망의 목소리는 독백적인 남성 지식인과는 구분되는 타자성을 지닌 여성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전략) 선생님의 해석은 건강하고 낙천적이고 미래가 있어서 좋습니다.」

「선생계선 그런 사상을 가졌으니까 대학에서도 실패를 보신 거예요.」

...(중략)...

불이 사르르하고 더워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실상은 저도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정신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신변 비밀을 듣고 나니 이젠지 제 비밀도 털어트려야 할 것처럼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이관형이는,

「그러시겠지요. 요즘 청년치고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쉬웁겠습니까.」

42) 전점이, 「김남천의 「경영」 「맥」, 교원대학교 대학원 수업(문예비평의 이론과 실제, 2002년 2학기) 발표문, p.11 참조.

43) 위의 발표문, p.12 참조.

▶ **합** **뿐** 그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은 표정은 없었다.<sup>44)</sup>

위에서 최무경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신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관형이 자유주의자의 고뇌를 말했다면, 최무경은 여성의 고뇌를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정신의 비밀을 털어 놓는 과정은, 여성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의 통과제의 같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백적인 남성 지식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의 여성성의 성숙 과정은 중단되어 버린다. 이 소설의 결말부는 여성에게 냉담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세계를 갖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최무경은 겨우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그녀는, 공판정에서 친일을 말하는 오시형에게 **실연당하는** 여성의 위치를 보여줌으로써, 남성중심적인 **혼탁한** 세계에서 단지 여성의 위치만이 부정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부정의 감각은 아직 여성자신의 세계(상징계)를 갖지 못한 탓에 비판적 힘이 미약한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여성이 독립해서 자신의 세계를 갖는 길, 즉 여성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길은 아직은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것처럼 여성에게 문을 닫는 남성중심적 세계에서, 보리처럼 흙에 묻혀 꽃을 피우려는 여성의 위치는 희망에 문을 닫는 역사의 빗장을 가까스로 열고 있었다. 김남천의 여성 시점 소설은 절망적인 파시즘의 시대에 아직 꽃피지 못한 여성의 위치만이 그 어둠에 등을 돌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필자 : 교원대 교수

44) 김남천, 「맥」, 앞의 책, pp.178~182.

### 참고문헌

- 나병철, 「근대문화의 기원과 주체의 계보학」, 『현대문화이론연구』 15집, 2001.
- 박화성, 「계급해방이 여성해방」, 『신여성』, 1933. 2.
-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 이광수, 「혼인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4.
- 이은경, 「강경애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9.
- 인성희, 「박화성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1.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길사, 1995.
- 이상경, 「강경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 堀和生,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농업정책」,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사계절, 1983.
- 가야트리 스피박 외, 유제분 외 역,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 들뢰즈 · 가타리,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 손덕수 외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 이경훈 역,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갈무리, 1996.
- 팸 모리슨, 강희원 역, 『문화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Abstract

The Socialist narrative and the Feminine discourse in  
Colonial period.

Na, Byung-chul

This thesis reinvestigated the socialist narrative in colonial period in terms of feminism. The socialist narrative and the socialist realism in colonial period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socialist perspective. But those studies did not revealed the reason why the socialist realism did not mirror successfully the reality in colonial period. This thesis revealed that the socialist realism did not mirror successfully the reality on account of patriarchal socialist perspective. And we revealed that woman writer's socialist realism in terms of feminine discourse, for she could revise the socialist perspective in terms of feminine discourse.

We focused on Park Wha-Sung's construction of sewerage and Kang Kyung-Ae's Human Problem. These two novels revised the socialist perspective in terms of feminine discourse, and because of that they could draw successfully the reality in colonial period.

This thesis also reinvestigated Kim Nam-Chun's novels of female viewpoint in terms of feminism. His novels revealed that female viewpoint could secure critical position in fascist period. Consequently we could show that feminine discourse and female viewpoint could go beyond patriarchal discourse and narrative.